

및 기술·규제요건 자문 등 원자력안전마크 수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원자력 안전기술 발전과 안

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마크 수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회원사 동정

### 한국원자력연구소

#### 하나로 기동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하나로 2005」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는 1995년 자력으로 설계 건조한 국내 유일의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HANARO)'의 기동 10주년을 맞이하여 대단위 국제학술심포지엄 「하나로2005」를 4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대덕 컨벤션 타운과 연구소 내의 연수원 본관 및 INTEC(원자력국제연수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하나로2005」국제학술심포지엄에는 중성자 초거울의 발명자인 페렌크 메자이(Ferenc Mezei) 교수, 미국표준연구소 중성자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한 마이클 로우(Michael Rowe)박사를 비롯한 중성자분야 세계 석학들이 대거 참석하여 중성자 및 냉중성자 관련 각국의 연구개발 현황이 발표되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제 5회 한일 중성자 산란 회의”, “제 3회 라디오그래피 워크숍2005”, “제 2회 한일 중성자 라디오그래피 워크숍”이 이번 국제학술대회 기간 함께 개최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연구용원자로 관련 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연구용원자로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 60여 명이 대거 참석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연구로용 핵연료 및 재료 조사 시험, 중성자 방사화 분석 등 10여 개 기술 분과에서 발표를

하였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주관하고,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 「하나로2005」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상호 토론을 통해 향후 '하나로'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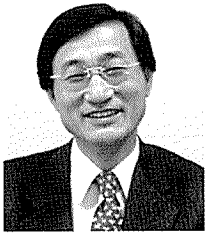
30여 년간 축적된 국내 원자력 기술의 결실인 '하나로'는 세계10위권의 성능을 보유한 30MW급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서 국내 산학연 이용자들이 중성자를 활용한 기초 및 응용 분야 연구에 있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왔다.

또한, 원자력산업체, 대학, 타 연구기관 등에서 의학·생명공학·환경분야 연구에 '하나로'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용 및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 방사성의약품개발, 원전기기 시료조사 등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21C 첨단 기술로 각광받는 NT(나노기술), BT(생명공학), ET(환경기술)의 기초기반시설로서 '하나로'를 중성자 산란연구의 동북아 R&D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첨단 연구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신임 원자력연구소장에 박창규씨 취임

-「원자력연구소 소장 이·취임식」개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4월 28일(목) 연구소 대강당에서 제 14·15대 장인순 소장의 이임식과 제16대 박창규 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신임 박창규 소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석사, 미시건대에서 박사를 취득한 후 1989년 원자력연구소에 입소했다. 이후 원자로안전 연구실장, 울진3, 4호기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과제책

임자, 응용연구그룹장, 미래원자력기술개발단장 등을 거쳐 1999년에는 선임단장 겸 신형원자로개발단장을 역임했다. 또 원자력위원회 이용개발전문위원(2000. 12 ~ 2002. 11)과 경실련 과학기술위원회 과학정책 분과 위원장(1993 ~ 1998)으로도 활동했다.

신임 박소장은 인사말에서 “전임 소장들의 훌륭한 경영을 모범으로, 연구성과를 극대화해 우리나라 미래 에너지를 책임지는 연구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아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 공동연구 진료기관 조인식

서울아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은 공동연구진료기관 조인식을 갖고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의료네트워크를 통해 의학연구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4월 20일(수)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이뤄진 이날 조인식은 서울아산병원 박건춘 병원장과 박성욱 기획조

정실장, 송영기 ARC소장, 대구파티마병원 박제윤 원장 등 관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조인식을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은 새로운 의료문화 창출을 비롯해 의학연구, 교육 등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 국내 동정

### 우리나라 환경방사선량은 ‘초록색’

‘우리나라 환경방사선 피폭량은 초록색!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과학기술부·감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 1분기 2차에 걸쳐 전국 37개 지역에 설치·운영중인 ‘국가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IERNET)’의 건전성을 점검 결과, 시간당 공간감마선량률이 9.4~19.2μR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의 평상 공간감마선량률 변동범위인 시간당 5~30μR의 5% 오차범위 내에서 양호한 상태다. 피폭량을 설명하기 위해 켈빈(R)과 시버트

(Sv)를 일 대 일로 볼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주민 대피기준인 시간당 1mSv, 즉 1000μR을 크게 밑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영광·월성·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을 비롯한 37개 지역에 지방방사능측정소(12개)와 무인환경방사선자동감시소(25개)를 운영중이다.

방사선량은 인터넷(<http://iernet.kins.re.kr>)을 통해